

지역금융 활성화와 신용협동기구 -경북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최진배* · 권오혁**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Vitalization of Kyungbuk: East Coast Region and The Credit Union

Jin Bae Choi* · Ohyeok Kwon**

요약 : 이 논문은 경북 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의 영세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많은 논의는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차입자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은 채, 신용평점제도와 담보에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체 그들의 취약한 경쟁력의 근저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도 이들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지역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역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신용협동기구, 지역금융시장, 지역사회에의 관여

Abstract :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of Kyungbuk-East Coast reg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redit unions do not do much for easing the credit constraints of small firms in the region. Many paper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adhere closely to the regional economy. But they do not do their best to collect borrowers' private informations. Instead they rely on the credit scoring system to assess their creditworthiness and require collaterals to reinforce their weak credits. That is the real root of weak competitiveness of credit unions. To overcome such a problem they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bearing in mind the cooperative principles, especially commitment for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contrive plans to foster them. When they function actively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ll become efficient and the regional economy grow smoothly.

Key Words : credit union, regional financial market, commitment for the community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7036).

*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Professor, Economics department, Kyung Sung University, jbchoi@ks.ac.kr).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okwon@pknu.ac.kr)

1. 서론

198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1987년 「지방금융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중앙정부가 지역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지역금융 문제는 또 다시 정책입안자(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방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전국은행에 합병되면서 지역금융이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¹⁾ 당시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논의와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금융이론에 근거하여 지역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미국경제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면서 Greenwald & Stiglitz(1992)는 지역금융기관 대출이 지역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Guiso 등도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완전히 통일된 금융시장이 존재해도 지역경제의 성장에 지역금융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지역금융시장이 발달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여 창업이 촉진되며, 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지역기업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성장이 촉진된다. 지역금융기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역금융이론이다.

지역금융이론은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전국금융시장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지역금융기관 신용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예컨대 Moore & Hill(1982)은 지역을 중심지와 주변부로, 금융기관을 금융중심지 금융기관과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금융 차입자를 대기업과 소기

업(및 가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은 지역의 소기업이나 가계에 자금공급을 제한하므로 이들은 지역금융기관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 금융문제가 지역의 소기업과 가계가 당면하는 자금조달상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시장과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예컨대 Samolyk(1994)은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는 지역자금의 이동을 제한하고, 지역자원을 잘못 배분하며, 지역신용의 할당을 초래하는 등 지역신용경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지역신용경로가 존재할 경우 지역투자자들은 지역은행에 의존하게 된다. 지역은행은 다른 지역의 은행에 비해 자기 지역의 투자기회에 대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지역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²⁾

지역금융이론은 지역금융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지역금융기관의 육성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정책입안자와 지역금융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전국금융시장으로부터 분단된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박원석(1997), 구재운·문호성(2004) 등은 우리나라에도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금융이론은 지역금융기관이 어떻게 하여 지역의 투자기회에 대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게 되며 감시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형 금융이론은 이들의 논의를 훌륭하게 보완한다. 관계형 금융이론은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이 차입자에 대한 연성정보 수집에 이점이 있고, 그리하여 재무적으로

불투명한 지역의 차입자가 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들에 의하면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은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은행에 비해 불리한 자신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관계형 금융이론은 주로 중소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역금융문제를 다르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그것이 지역밀착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그것이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금융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그리고 저신용계층)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민금융기관이기 이전에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협동조합으로서 신용협동기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등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신용협동기구가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경북 동해안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관계형 금융이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여기서 중시하는 점은 관계형 금융이 신용협동기구에 적합한 금융기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3장에서는 경북 동해안지역의 금융현황을 살펴본 후,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그것의 지역금융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다. 제4장은 3

장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북 동해안지역 금융시장의 구조와 문제점을 서술한다. 5장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2. 논의의 검토

1) 관계형 금융이론 개관

많은 논의들은 신용협동기구가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용협동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지역주민인 조합원이며, 그것의 영업구역이 대체로 소규모 지역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형 금융기법 활용하기 위해 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Berger *et al.*(2001)은 관계형 금융 하에서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과의 오랜 접촉, 기업의 소유주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계층과의 접촉, 금융계에 제공한 기업의 과거의 대출과 서비스에 대한 자료, 기업의 고객과 공급자들과의 접촉,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은행의 지식(특히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제시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적 특징은 대출심사를 할 때 이용되는 정보의 유형과 대출기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egryse *et al.*, 2009). 금융기관의 구조가 정보의 유형과 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윌리엄슨형 조직적 불경제(Williamson-type organizational diseconomies)이다. 그것은 은행이 관계적 대출을 거래적 대출 혹은 다른 도매금융서비스를 공급할 때 불경제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은 연성정보의 저장소라 할 수 있

는 대출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 연성정보가 조직 내부에서 용이하게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인문제가 있다는 설명으로 구체화된다(Berger & Udell, 2006). Degryse *et al.*(2009)도, 조직 내의 권한 배분이 대리인 유인(agents' incentive)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위계적 조직을 갖춘 은행은 소통하기 쉽고 조직 내부에 저항이 용이한 경성정보에 더 많이 의존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대리인비용 문제는 대규모 은행이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은행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 대출심사역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고, 그 결과 대규모 은행은 관계형 금융기법을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서 분명해진다(Berger & Udell, 2002).

Porteous(1995)는 조직상의 거리와 대출절차상의 거리는 연성정보의 전달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과 차입자와의 거리가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를 그는 정보의 진부화(information decay)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 정보가 진부화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한다. 즉 “특정 유형의 정보의 질과 유용성은 정보생산자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멀어질수록 급속히 하락한다. 정보는 그것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자에게 가치를 가진다. 그것의 배경 없이 정보는 유효하게 평가될 수 없다”(Porteous, 1995: 8) 정보의 질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고 정보문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Hauswald & Marquez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보완한다. “(금융중개기관은) 자신의 주요 활동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차입자 특수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Hauswald & Marquez, 2006) 거리와 관련된 교통비의 문제를 제기하는 Degryse 등은 보다 현실적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행은 차입자에 대한 물리적 근접성으로부터 시장지배력을 획득한다. 차입기업

에 가까이 위치한 은행들은 교통비와 감시비용이 적게 든다.”(Degryse *et al.*, 2009)

차입자의 재무적 정보가 불투명할수록 대출심사에서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업의 정보가 매우 불투명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보다는 기업주의 신용이력에 기반한다(Berger & Udell, 2002). 차입자 정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Howorth & Moro(2006)이다. 그들은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함에 있어 기업과 은행 사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신뢰도(trustworthiness)를 평가함에 있어 능력(ability), 자비심(benevolence), 성실성(integrity)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들 요소는 모두 기업이 개인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것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기업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다. 무엇보다 재무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신용 이용 가능성이 제고된다. 은행이 대출관계에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인데(Berger & Udell, 2006), 특히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력이 짧은 기업에게 신용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준다(Peterson & Rajan(1995), 나아가 Cetorelli(2003), Cetorelli & Gambera(2001), Bonaccorsi di Parti & Dell'Ariccia(2004) 등은 이탈리아 사례를 분석하면서 관계적 금융이 활성화되면 신생기업의 창업이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관계형 금융기법의 효과가 기업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기업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은행의 정보생산이 활성화되면 금융중개도 활기를 띠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2) 관계형 금융이론과 협동조합은행

DeYoung *et al.*(2004), Avery & Samolyk(2004) 등이 지적하듯이 관계형 금융기법은 소규모 지역금융기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행을 분석하는 논의들도, Angelini *et al.*(1998), Ferri & Messori(2000), Presbitero & Zazzaro(2011), Catturani & Borzaga(2014) 등에서 보듯이 협동조합은행이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Presbitero & Zazzaro(2011)는 은행규모와 조직규모는 대출성향과 자산배분(연성정보에 기반한 대출 대 경성정보에 기반한 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에 동의한다. 이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협동조합은행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조직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담당자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적다. 또는 대리인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협동기구의 영업구역은 크지 않다. 따라서 차입자와 신용협동기구의 본점 사이에 거리가 정보의 전달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가 진부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³⁾

기업에 대한 사적정보의 생산이 활기를 띠려면, Berger & Udell(2006) 그리고 특히 Howorth & Moro(2006)가 강조하듯이, 은행-기업간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은행에 기꺼이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행은 매우 유리한데, 이러한 사정을 Cornée(2014)는 이렇게 말한다. 연성정보의 질, 즉 그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은 은행직원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정도 그리고 그들이 고객과 사전적으로 친근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존한다.”또는 “신뢰와 협동적 기초는 대출자와 차입자간 질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의 원활한 흐름에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인

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⁴⁾ 이러한 논의가 중시하는 것은 투자자소유은행에 비해 위험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결과 금융안정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점 등이다.⁵⁾

그런데 협동조합이론가들은 협동조합은행이 관계형 금융이론에 근거하여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이다. 협동조합은행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Giagnocavo 등은 이렇게 말한다. 관계형 금융은 “조합원과 조합간 연대를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그들의 상호성”을 위협에 떨어뜨리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조합의 공동유대를 약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공동유대가 약화되면 협동조합은행은 “다수의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데,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은 강력한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형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위협에 떨어뜨릴 수 있다”(이상 Giagnocavo *et al.*, 2012). “사회적 책임은 정체성의 일부”(Book, 하: 96)이기 때문이다.

관계형 금융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상환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는 지역개발 및 이를 위한 협동조합은행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차입자 개인의 채무상환가능성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도 간과한다. 협동조합이론가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은행의 기능강화문제를 논의할 때 단순히 그것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공급하느냐 또는 지역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⁶⁾ 즉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느냐 하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MacPherson(2012)

이 지적하듯이 이는 협동조합은행이 지역에 밀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사회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에도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지역사회에의 관여 (concerns for the community)는 협동조합 기본원칙의 하나인데,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선언을 한 이후 이 원칙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⁷⁾

우리나라의 논의도 신용협동기구가 관계형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1980년대 금융자유화조치를 실시하면서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었는데⁸⁾, 류덕위(2015)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평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관계형 금융이 신용협동기구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용평점제도가 거래적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신용협동기구의 경쟁력 강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소영세기업의 대출신청서를 심사할 때 어떤 기법을 이용하느냐는 금융기관과 대출신청자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주로 금융기관의 비교우위, 이용 가능한 기업정보, 이용가능기법의 기대비용과 정확도와 같은 요인에 의존한다(Berger & Frame, 2007).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평점기법의 활용에서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비용절감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규모는 소규모이지만 은행에 비해 대출 건수가 많지 않아 은행에 비해 비용절감효과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

표 1. 경북 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현황(말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금은행(1)	68,283 (53.1)	76,042 (54.3)	76,737 (51.1)	79,784 (49.0)	85,038 (49.4)	88,159 (47.8)	91,904 (47.6)	92,389 (46.1)
전국은행	55,221 (43.0)	61,352 (43.8)	63,055 (42.0)	64,299 (39.5)	69,281 (40.3)	71,401 (38.7)	73,980 (38.4)	73,855 (36.8)
지방은행	13,062 (10.2)	14,690 (10.5)	13,682 (9.1)	15,485 (9.5)	15,757 (9.2)	16,758 (9.1)	17,924 (9.3)	18,534 (9.2)
신용협동기구	60,257 (46.9)	63,937 (45.7)	73,350 (48.9)	83,048 (51.0)	86,967 (50.6)	96,190 (52.2)	100,978 (52.4)	108,194 (53.9)
상호금융	43,440 (33.8)	45,912 (32.8)	51,302 (34.2)	57,472 (35.3)	61,742 (35.9)	68,306 (37.1)	72,074 (37.4)	76,831 (38.3)
신협	4,026 (3.1)	4,436 (3.2)	5,797 (3.9)	6,556 (4.0)	6,403 (3.7)	7,080 (3.8)	7,256 (3.8)	7,719 (3.8)
새마을금고	12,791 (10.0)	13,589 (9.7)	16,251 (10.8)	19,020 (11.7)	18,822 (10.9)	20,804 (11.3)	21,648 (11.2)	23,644 (11.8)
합계(2)	128,540 (100.0)	139,979 (100.0)	150,087 (100.0)	162,832 (100.0)	172,005 (100.0)	184,349 (100.0)	192,882 (100.0)	200,583 (100.0)

주: 1) 예금은행 예금은 시장성수신이 포함. 2) () 안은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3. 경북 동해안지역의 금융현황

1) 지역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현황

경북 동해안지역의 수신을 보면 2010년 이후 신용협동기구의 수신이 예금은행의 수신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말 현재 그것은 53.9%이다. 신용협동기구의 수신경쟁력은 높은 실질이자율에 있는데, 정부는 2009년부터 신용협동기구의 비과세예금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신용협동기구의 지역예금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예금은행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예금은 2009년 전년에 비해 절대액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 점유율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은행의 예금은

절대액이 감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신용협동기구의 수신경쟁력 강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의 비중이 제일 높다. 2010년 지역수신시장 점유율이 35%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4년에는 38.3%를 기록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수신은 2011년 전년에 비해 절대액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성장세를 다시 회복하였다.

세계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2009년 지역대출금시장에서 신용협동기구의 점유율은 전년의 33.9%에서 33.4%로 하락하였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지역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6.1% 증가하였으나

표 2. 경북 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총대출 현황(말잔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금은행(1)	68,423 (57.6) (95.4)	76,087 (59.6) (95.3)	80,456 (61.6) (94.5)	84,775 (62.6) (94.4)	92,536 (63.9) (88.4)	102,225 (65.0) (79.1)	112,292 (65.9) (78.4)	119,065 (64.0) (79.5)
전국은행	55,083 (53.3)	61,853 (53.8)	65,728 (54.4)	68,272 (52.9)	72,727 (51.3)	79,581 (51.2)	85,389 (49.7)	88,846 (47.4)
지방은행	13,340 (12.9)	14,234 (12.4)	14,728 (12.2)	16,503 (12.8)	19,809 (14.0)	22,644 (14.6)	26,903 (15.7)	30,219 (16.1)
신용협동기구	34,843	38,966	40,406	44,250	49,105	53,340	59,351	68,217
상호금융	25,809 (25.0)	29,076 (25.3)	29,664 (24.5)	31,340 (24.3)	34,599 (24.4)	37,721 (24.2)	42,028 (24.5)	48,485 (25.9)
신협	2,291	2,601	2,786	2,955	3,059	3,109	3,796	4,669
새마을금고	6,743	7,289	7,956	9,955	11,447	12,510	13,527	15,063
합계(2)	103,266	115,053	120,862	129,025	141,641	155,565	171,643	187,282
1/2(%)	66.3	66.1	66.6	65.7	65.3	65.7	65.4	63.6

주: 1) 예금은행의 ()는 윗줄은 기업대출비중, 아랫줄은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비중. 2) 전국은행과 지방은행 예금 밑에 있는 () 안의 숫자는 지역 총예금에 대한 점유율.

자료: 한국은행.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4.7%, 13.2% 증가)하면서 여신도 증가하여 지역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까지 35%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14년에는 36%를 상회하였다. 가계 자금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같은 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에 비해 21.6% 증가하였다.

지역대출시장에서 예금은행의 점유율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는 지방은행 대출의 증가에 크게 힘을 얻고 있다. 전국은행의 점유율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에는 50%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방은행의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6%를 상회하였다. 수신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상호금융은 대출에서는 24-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출부진현상은 모든 신용협동기구에서 나타나는데, 보다 상세한 사정은 금융기관의 예대율에 잘 나타난다.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는데, 2014년의 그것은 128.9%에 이르고 있다. 은행은 지역의 강력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성수신의 조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국은행, 지방은행 모두 예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예대율은 전국은행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2014년 그것은 163.0%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신용협동기구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예대율이 6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대출이 부진하다.⁹⁾ 금융기관별로 보면 신협이 예대율이 가장 낮다. 2009년 50%에 미치지 못하던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2011년 이후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시도연합회-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희망드림론 지원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은 2011-2014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신용협동기구의 부진한 대출은 지역의 자금수요 부진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대상지역 예금은행 대출의 80% 정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왕성하다. 그러나 신용협동기구는 기업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대출심사능력이 없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주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평점제도와 담보에 의존하면서 지역의 소규모차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이들의 자금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적 대출기법으로는 그들의 대출신청서를 적절히 심사해낼 수 없다.

신용협동기구의 낮은 예대율은 지역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간 상부상조의 의미도 크게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금이 이들을 통해 지역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대출되지 않은 예금은 신용협동기구별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해당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에 예치되는데, 중앙회는 예치금을 주로 유가증권투자와 PF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과세예금제도 및 그것의 한도확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금융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신용협동기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의 차입자의 투자안을 적절하게 심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지역의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영세한 차입자들은 금융제약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스로도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은행 점포수는 모두 72개이다. 그러나 포항시에 있는 점포가 52개로 72.2%를 차지하며, 경주시가 16개(22.2%)로 두 개 시에 있는 점포수가 94.4%를 점하고 있다.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두 개 시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를 설치한 은행은 대구은행이다.

군 지역에는 지역의 은행인 대구은행 점포가 없으며, 농협은행(울진군, 영덕군, 울릉군)과 국민은행(울진군)의 점포만 있다. 비록 신용협동기구가 있지만 지역금융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협은행은 모든 군 지역에 점포가 있는데, 군의 재정자금 취급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반영한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군 지역경제의 자금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협동기구를 보면 지역농협의 점포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지역수협(12개)과 지역축협(3개)을 따로 분리하여 보면 농협이 33개이다. 새마을

금고의 수는 32개인데, 그것은 포항시와 경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지역수협이 12개나 되는 것은 경북 동해안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지역기업체의 주거래은행 분석

지역기업체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한 기업 통계이다. 이 자료가 입수된 것은 2015년 5월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자료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다. 기업자료에는 상시종업원수, 업종, 신용등급(한국기업데이터가 평

표 3. 경북 동해안지역 금융기관의 예대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금은행(1)	100.2	100.1	104.8	106.3	108.8	116.0	122.2	128.9
전국은행	99.8	100.8	104.2	106.2	105.0	111.5	115.4	120.3
지방은행	102.1	96.9	107.6	106.6	125.7	135.1	150.1	163.0
신용협동기구	57.8	60.9	55.1	53.3	56.5	55.5	58.8	63.1
상호금융	59.4	63.3	57.8	54.5	56.0	55.2	58.3	63.1
신협	56.9	58.6	48.1	45.1	47.8	43.9	52.3	60.5
새마을금고	52.7	53.6	49.0	52.3	60.8	60.1	62.5	63.7

자료: 한국은행.

표 4. 경북 동해안지역의 금융기관 현황(점포수)

	은행					신용협동기구				합계
	전국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지방은행	계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계	
포항시	30	7	12	3	52	12(9)	22	11	45	88
경주시	9	3	3	1	16	13(11)	7	2	22	37
울진군	1	1	0	0	2	10(8)	1	0	11	13
영덕군	0	1	0	0	1	7(4)	1	2	10	11
울릉군	0	1	0	0	1	2(1)	1	0	3	4
합계	40	13	15	4	72	44(33)	32	15	91	153

주: 1) 전국은행 점포수는 농협은행의 그것을 제외한 것이며, 지방은행 점포수는 부산은행(2)과 경남은행(2)의 그것을 나타낸다. 2) 지역농협 점포수에는 지역수협과 지역축협의 그것이 합산되어 있으며, ()의 숫자가 지역농협 점포수이다.

3) 신용협동기구는 본점 기준이며, 점포는 제외되어 있다.

자료: 한국은행.

가한 등급과 다른 기관이 평가한 등급이 혼합되어 있다), 기업체의 업력, 주거래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거래은행은 기업체가 자신의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이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한 경북 동해안지역 기업 수는 1십만개가 넘는다. 그러나 기업의 정보 중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기업체 수는 최대 22,832개(업력)에서 최소 4,980개(주거래은행)로 편차가 많다.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 현황을 보면 총 4,980개 기업 가운데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2,934개(58.9%),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1,146개(23.0%), 신용협동기구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793(15.9%), 기타 104개(2.1%)이다. 지역대출금시장에서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의 비중이 신용협동기구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이 2014년 현재 지역대출금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47.4%, 16.1%이며, 신용협동기구의 그것은 36.4%이다. 이는 신용협동기구의 기업대출이 부진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의 기능은 은행별로 차이가 많다. 농협은행(15.0%)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 국민은행(12.5%)과 기업은행(10.1%)이 뒤를 잇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행이나 소영세기업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국민은행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은행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지방은행의 높은 비중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높은 점유율(19.8%)에 기인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점유율은 각각 1.7%, 1.5%이다. 지역에 진출한지 오래되었지만(부산은행 1993년, 경남은행 2006년) 이들의 낮은 점유율은 대구은행과는 달리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자임(自任)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용협동기구별로 보면 새마을금고가 10.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협(2.3%), 지역농협

표 5.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역 전체	2시 지역	3군 지역
전국은행	2,934(58.9)	2,661(59.8)	273(51.5)
지방은행	1,146(23.0)	1,111(25.0)	35(6.6)
신용협동기구	793(15.9)	577(13.0)	216(40.8)
기타	104(2.1)	98(2.2)	6(1.1)
합계	4,980(100.0)	4,450(100.0)	530(100.0)

주: 2시 지역은 포항시와 경주시이며, 3군 지역은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다.

(2.2%), 지역수협(0.8%)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농협의 낮은 점유율은 예상 밖인데, 이는 그들이 농어민, 개인 그리고 농법인에 대한 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비중이 높은 것은 농협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만큼이나 예상을 벗어난 일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에 있는 개별 금융기관 전체와 비교해 보아도 점유율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석대상지역을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해보면 시 지역의 경우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지역 전체의 그것에 비해 상승하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간 하락한다. 이것은 전국은행의 경우 두 은행을 제외하고는 시 지역에만 점포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정을 반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시 지역에만 점포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시 지역에서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의 비중은 지역평균에 비해 2.0% 포인트 상승한다. 대구은행의 점유율은 21.3%로 어떤 은행보다 높다. 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비교적 비슷한 점유율을 나타내는 농협은행의 점유율(13.5%)에 비해 7.8% 포인트 높다. 신용협동기구의 점유율은 지역평균에 비해 하락한다.

대구은행은 시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의 높은

밀착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군 지역에서의 밀착도는 6.6%에 불과하다. 군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기업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거리가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을 제외한 전국은행도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역기업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는 빈도가 낮거나 없다.

군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동 은행의 지역평균을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여준다. 즉 농협은행의 경우 군 지역에서 주거래관계를 맺는 지역기업의 비율은 동 은행의 지역평균보다 12.0% 포인트 높은 27.0%이며, 국민은행의 경우 그것은 14.3%로 동 은행의 지역평균(12.5%)보다 1.8% 포인트 높다. 신용협동기구는 군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평균보다 매우 높은 40.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기업들이 신용협동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새마을금고의 점유율은 특히 높은 3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군 지역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의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이며, 자신의 지역평균 점유율을 19.4% 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신협과 지역농협의 군 지역에서 점유율은 2% 초반 수준으로 새마을금고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표본기업의 상시종업원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54개 기업 중에서 종업원 1인인 기업이 4,747개(46.8%)로 가장 많다. 종업원 2-5인 이하인 기업은 3,238개(31.9%)인데 종업원 5인 이하가 표본에서 접하는 비율은 78.6%이다. 종업원 11-50인 이하의 기업은 1,926개(19.0%)이다. 종업원 501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14개인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지역기업이 주거래은행관계를 맺고 있는 사정을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이 1인인 기

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새마을금고(25.1%), 대구은행(20.8%), 농협은행(19.9%), 국민은행(11.4%)이다. 이들의 점유율은 77.2%에 이르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유율이다. 종업원 2-5인 기업의 경우에는 대구은행(20.5%), 농협은행(15.1%), 국민은행(13.6%), 기업은행(9.1%)이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은 7.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종업원 1인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던 새마을금고는 4.7%로 눈에 띄게 감소하며, 종업원 6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새마을금고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지역기업은 없다. 대신 지역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는 그들이 농법인에게 대출한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종업원 6인 이상인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도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는 대구은행의 지역밀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 재정자금 취급은행으로서 농협은행은 5인 이하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구은행 점유율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구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상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종업원 21-100인 이하 기업에서 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종업원 규모가 커질수록 전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이 많은데, 재무투명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할 때 은행들은 주로 재무제표대출기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에 높은 밀착성을 보이는 은행은 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이며, 종업원 5인 이하 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는 대구은행을 제외하면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업종을 크게 제조업(금속 부품, 목재, 섬유, 화학, 자동차 등), 건설관련업(건설, 도장, 시설물, 도배 등), 운송업(택시, 화물 등), 도매업,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미용업, 자동차수리업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은행(24.6%), 대구은행(14.5%), 국민은행(9.4%), 농협은행(7.5%), 신한은행(7.4%), 경남은행(5.6%)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농협(1.4%), 새마을금고(1.2%), 신협(0.4%) 등 신용협동기구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매우 적다.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거래은행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점유율이 각각 12.9%, 3.0%라는 점에서 제조업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특히 눈에 띄는데, 새마을금고를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은 도소매업 7.4%, 운송업 21.2%, 음식점업 23.6%, 기타 서비스업 16.1%로 점유율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기업은행이 24.6%로 점유율이 제일 높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이 제일 높다. 농협은행은 비제조업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제조업과 건설관련업을 제외하고는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과는 달리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고 재무투명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인적 물적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은 규모가 작아 대출관련비용이 높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연성정보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업력별 주거래은행 현황을 살펴보자. 업력은 기업의 창업 이후 현재까지의 존속기간을 나타내는데, 업력 15-20년 구간(국민은행), 25-35년 구간(기업은행)을 제외한 업력 구

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주거래은행은 대구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모든 업력구간에서 2위 또는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2-4위를 점한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업력구간에서 비록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업력 5-15년 구간의 기업과 비교적 많은 주거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이다. 그런데 그들이 영세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높은 재무적 불투명성은 이들의 신용평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세기업의 대출심사를 위해 그들은 신용평점제도에 의존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담보로 신용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이들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의 금융기관

지방정부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지렛대로 하여 지역기업이 원활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예컨대 경상북도금고뿐만 아니라 시와 군의 금고업무도 취급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와 군 차원에서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구은행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에 자금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정부나 지역금융기관과 정책·협약보증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지방정부 등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기금출현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1,630억원에 이르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와 같은 정부출연금이 1,163억 원으로 71.3%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역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목적은 물론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데 있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도 충분하지 않은 지역기업은 금융기관신용에 접근하기 어렵는데, 지역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기업의 금융제약을 일부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7.9%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본점 차원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지만¹¹⁾, 지점수준에서 특정 지역과 협약을 맺기도 한다.¹²⁾ 2010년에는 새마을금고도 지

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인 「희망드림론」을 지원하고 있다.¹³⁾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 분석에서 새마을금고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희망드림론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을 보면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록 이들 업종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정책·협약보증이 이루어지는 업종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들 업종은 업종별 주거래은행에서 대구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의 점유율이 높은 업종과도 유사하다. 한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업종은 은행신용에의

표 6.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0-2011	2012	2013	2014	누계
국비	346	17	7	4	373
도비	328	43	42	41	454
시군비	273	20	23	20	336
금융기관	223	77	109	45	455
기타	12	-	-	-	12
합계	1,182	157	181	110	1,630

자료: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표 7.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종별 보증공급

(단위: 업체, 개)

구분	2000-2012		2013		2014		누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제조업	6,058	9.0	1,109	8.2	1,292	8.8	8,459	8.8
도소매업	22,068	32.9	4,329	32.0	4,541	31.1	30,938	32.5
음식숙박업	18,770	28.0	3,663	27.0	4,078	27.9	26,511	27.8
서비스업	11,022	16.4	2,142	15.8	2,247	15.4	15,411	16.2
건설업	3,416	5.1	897	6.6	1,069	7.3	5,382	5.7
기타	5,758	8.6	1,409	10.4	1,375	9.4	8,542	9.0
합계	67,092	100.0	13,549	100.0	14,602	100.0	95,243	100.0

자료: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접근이 제약되어 있으며, 소규모 기업이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기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보증재단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보증재단의 기금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출연금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4. 지역금융시장의 구조와 문제점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외부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외부등급에 내부등급을 감안한 결합등급을 이용한다. 등급을 산정하는 과정과 논리는 같지만 외부등급은 차입자의 부실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부등급은 차입자의 소득수준, 직업(의 안정성), 거래내역 등을 평가한다. 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가 사용하는 외부등급은 동일할지라도 내부등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같은 외부등급의 차입자라 할지라도 채무상환능력은 은행 차입자가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Santikian(2014)이 말하는 손실가능성등급(facility rating)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신용협동기구는 은행이 수취하기를 꺼리는 담보를 수취하는데, 그것은 가격의 변동성이나 유동

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담보보다 열등하다. 이것은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용협동기구가 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은행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동해안지역에 있는 지역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86.8%이며, 지역신협의 경우 그것은 87.8%이다.¹⁴⁾ 눈에 띄는 점은 기타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담보대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 담보는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도 낮다. 금융정책당국이나 지방정부는 소영세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신용협동기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도록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점제도에 의존하는 한 그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차입자 현황을 보면, 외부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은행차입자의 신용등급분포는 1-4등급 이상이 전체 차입자의 64.2%를 차지하며 5등급까지 더하면 그 비율은 78.6%이다. 이에 비해 신용협동기구 차입자 신용등급은 주로 4-7등급에 분포되어 있으며, 5-7등급 차입자가 전체 차입자에서 점하는 비중은 50.2%이며, 4등급까지 더하면 그것은 65.9%에 이른다.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외부등급과 함께 내부등급과 능력등급도 아울러 감안하면 신용협동기구 차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차입자 신용등급의 이러한 차이는 은행에 비해 신용협동기구의 경쟁력이 열세에 있다는 것

표 8.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차입자 현황 (2012년 10월 기준)

(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은행	16.1	16.0	15.6	16.5	14.4	9.8	7.8	2.2	0.8	0.9
지역농협	4.4	8.0	11.1	15.8	18.0	13.7	15.3	6.5	3.1	4.0
새마을금고	2.1	6.6	13.7	18.4	18.9	14.2	16.1	5.7	2.4	2.0
신협	1.7	4.2	7.5	12.9	17.9	15.4	21.1	9.6	3.8	5.8
신용협동기구평균	2.7	6.3	10.8	15.7	18.3	14.4	17.5	7.3	3.1	3.9

자료: KCB(김대익(2013)에서 재인용).

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용협동기구의 대출 금리는 은행의 그것에 비해 높다. 그런데 높은 대출 금리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신용협동기구는 담보의존적인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담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금융수요는 충족되지 못한다. 이들이 취득하는 담보는 가격의 변동성이나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이 취득하는 담보에 비해 열등하다. 신용협동기구들의 예대율은 은행의 예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그들은 거액담보대출과 역외대출에 주목하게 된다.¹⁵⁾

신용협동기구의 경우 거액대출의 비중이 높다. 경북 동해안지역에 있는 지역농협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2시의 경우 5억원 이상이 20.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액대출의 비중은 낮는데, 지역 전체로는 3천만원 미만이 16.4%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3군의 경우 32.7%로 높은 수준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지만 신탁의 소액대출 비중은 지역농협보다 높은 편이다. 지역농협의 경우 신탁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이들의 금융제약을 완화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협동기구의 거액담보대출 중심의 자금운용은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¹⁶⁾ 신용협동기구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실화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운용방식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들을 지역금융기관으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영업구역이나 조직구조의 특징은 신용협동기구

가 지역에 밀착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들의 영업구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 그것을 설립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밀착될 수 있는 조직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용협동기구는 지역경제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지방정부, 지역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의 면에서도 은행에 현저히 뒤져있다. 그들은 조합원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영세기업에 대한 정보의 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신용협동기구가 대출심사에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신청서를 심사할 때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 그러나 일부 신용협동기구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출한 후에 차입자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 등을 함축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소액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피면담자는 대출심사가 신용평점제도(그리고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차입자의 개인적인 정보 불용론(不用論)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들은 대출심사를 할 때 신용평점제도(그리고 담보)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에는 차입자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도 가세하고 있다.

개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할 때 신용평점제도에 의존하는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용

협동기구들에게 증대한 위협으로 될 수 있다. 신용협동기구의 어느 피면담자는 차입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명도나 업계에서 위상 등이 은행 차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이들의 지역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다. 공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인식 즉 공신력도 높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소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는 차입자인 조합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차입자 현황을 보여주는 표 8.이 경북 동해안지역에도 타당하다면 지역금융시장은 금융기관 간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은 은행신용을 낮은 차입자들은 신용협동기구 신용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위계질서는 외부등급과 내부등급을 종합한 결합등급 그리고 여기에 담보의 가격변동 가능성과 유동성 정도를 감안한 능력등급까지 고려할 때 매우 강고해 보인다. 이러한 위계구조는 일견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공급이 담보와 신용보증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저신용계층과 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이 공급하는 고리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평가는 성급하다. (지방) 정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서는 지역기업 특히 소영세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의 개입 없이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제약이 완화될 때 우리는 지역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동해안지역을 2시 지역과 3군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지역의 금융기관은 2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3군 지역에서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진출하지 않고 있다. 3군 지역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지

역농협과 수협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지역기업의 주거래은행분석은 지역금융시장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예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신용평점제도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그리고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소홀히 하면서 대출심사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용협동기구의 예대율은 낮는데 이는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자금의 지역 밖으로의 유출통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신용협동기구의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신용협동기구, 특히 지역농협과 신협은 지역의 영세기업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극히 제한된 역할은 대구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대비된다. 지역의 영세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후자의 노력은 지역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역농협과 신협도 지역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영세기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밀착된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할 때 이들은 지역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보다 많은 신용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의 관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구

하고자한다. Macpherson(2013)이 말하듯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때 그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논의는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차입자와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가계금융시장에 적극 진입하면서 그들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의 차입자의 사적인 정보 획득 및 활용 능력 부족(또는 결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구은행, 농협은행 등이 지역 영세사업자의 주 거래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용협동기구의 역할부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심사능력의 결여로 이들에게 신용을 공급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신용협동기구는 연성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이론가들은 그것이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사정을 함의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의 자금운용이 단순히 지역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용협동기구는 상업적금융기관이 진입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시장, 이른바 틈새시장을 겨냥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정한 성격, 사회적 가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위해 봉사할 조직으로서 신용협동기구 자금운용의 중점은 지역경제를 개발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신용협동기구들의 경영형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할 때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된 지역의 영세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금

융제약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진범(2009)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거의 없다. 이제 지역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과제로 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 금융기관 특히 신용협동기구의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역금융에 대한 일부 논의들은 지역금융문제가 경제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Guiso 등은 “지역금융의 효과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는 것은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발달된 지역금융시장의 “실제적인 수혜자들은 정치적인 수준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는 소기업과 창업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Guiso *et al.*, 2004). 그리고 관계형 금융이론을 검토하는 DeYoung *et al.*(2004)도 지방자치, 지역분권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도 지역은행의 육성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신용협동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참된 의미의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주

- 1) 여기서는 전국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제외한 예금은행을 전국은행이라 부른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어 사라졌는데, 신용협동기구의 퇴출비율은,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면, 20-50%에 이른다. 은행의 1.5%와는 크게 대비된다. 류덕위(2015) 참조.
- 2) 한국의 논의로는 박원석(1997), 정기화 외(1998), 구재운·김희순(2001), 김영철(2001), 문호성·구재운(2004) 참조.
- 3)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규모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은행은, 고도로 위계적인 구조 때문에, 조직적 불경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집약적인 차입자에 대한 관계에 기반한 대출을 할 때 소규모의 지역은행에 비해 불리하다. 관계형 대출이 부호화되지 않은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이들

- 정보는 지역에 있는 기회주의적인 대출직원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기법의 사용은 은행의 조직계층 간 심각한 소통 및 대리인문제를 야기하므로 대규모의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은행들에게는 권고할 수 없다. 한편 경력이 있는 대출직원은 자신이 차입자와의 관계를 맺어 획득한 연성정보를 본점의 경영자가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연성정보를 생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경성정보와 입증가능한 정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Presbitero & Zazzaro, 2011)
- 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Lemzeri(2014) 참조.
 - 5) 이를 특히 강조하는 논의는 Birchall & Ketilson(2009)와 Birchall(2013)이다. 이들의 논의보다 분석적이며 다소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Lemzeri(2014)와 Ory & Lemzeri, 2012)도 협동조합은행이 지역경제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 6) 영국신협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금융제약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도 신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최진배(2015) 참조. 한편 원승현(2015)에 의하면 저소득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 이 또한 단순히 금융공급의 확대만으로는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7) 이에 대한 검토로는 최진배(2014) 참조.
 - 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최진배(2013) 참조.
 - 9)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즉 비조합원에게도 대출할 수 있는데, 그것의 대출한도는 신협과 산림조합은 신규취급대출의 1/3 범위 이내, 지역농협은 1/2 범위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에 대출하는 규모는 표 2.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 10) 관계형 금융이론은 대출자와 차입자의 거리가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Porteous(1995), Hauswald & Marquez(2006), Degryse *et al.*(2009) 참조.
 - 11) 경북제일신보(2009년 7월 4일자 기사)는 조금 지난 일이지는 하지만 대구은행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즉 대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경제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및 융자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http://www.kbjeil.co.kr>.
 - 12) 울진신문(2014년 11월 13일자 기사)에 의하면 농협울진군지부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과 원거리지역 소상공

인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주로 울진군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13) 경북신보(2011년 5월 24일자 기사)에 의하면 희망드림론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시도연합회-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1-2014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총보증재원은 200억원(특별교부세 100억원, 새마을금고 100억원)으로 경상북도는 특별교부세 5.6억원을 배정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다.
- 14) 지역의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자료접근이 가능한 지역농협과 신협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는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자료이다.
- 15) 이들 대출 특히 역외대출은 상대적인 고금리로 운용된다. 그러나 차입자나 그들이 제공하는 담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높은 위험을 안게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 즉 감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최진배, 2014 a).
- 16) 한국은행 포항본부(2015)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지역 여신 거래자 중 비은행권 이용자들은 금리민감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은행권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급여생활자 등 대출이용 가계의 경우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래기관이 제한적이기 때문”(한국은행 포항본부, 2015)이라는 지적에서 보듯이 비은행권 이용자들은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 17)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지역은행들이 전체 은행자산과 금융흐름의 매우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지역경제, 특히 소기업금융에서 그들의 중심적인 역할 때문에 양적인 비중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지역은행업은 소기업과 자원에 대한 지역의 통제가 본질적으로 선(善)이며, 중앙 집중된 금융적 경제적 및 정치적 힘은 본질적으로 악(惡)이라는 전통적인 미국적 신념들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역은행의 쇠퇴가 지역사회의 경제구조뿐 아니라 사회구조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DeYoung *et al.*, 2004)

참고문헌

- 구재운·김희순, 2001, “한국의 지역신용경로”, 한국경영경제연구 1(1), pp.117-133.
- 김대익, 2013, “신협의 수신경쟁력 강화방안”, 신협연구 제60호, pp.93-162.
- 김영철, 2001, “지역은행의 발전방향”, 지역사회연구

- 9(2), pp.23-51.
- 류덕위, 2015, “상호금융 사업모델의 한계와 발전방향”, *신협연구* 제64호, pp.1-48.
- 문은진·이금숙, 2013, “금융산업의 분포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분석: 수도권 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pp.512-527.
- 문호성·구재운, 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계간경제분석* 10(1), pp.1-25.
- 박원석, 2008,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4), pp.580-599.
- 박원석, 1997,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원석, 1999,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2), pp.63-81.
- 변필성, 2009,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1), pp.111-121.
- 새마을금고중앙회, 2013, *경제위기와 협동조합의 회복력: 금융협동조합의 저력(=Birchall, J., 2013,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operative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역, 2012,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조합원에서 출발해 지역사회 이익을 향해”, *iCoop 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1), pp.1-18 (=Macpherson, I., 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from member toward local communities’ interest”, *Euricse Working Paper* 46(13)).
- 원승현, 2015, “서민금융과 소득분배”, *하나금융연구소, Weekly Hana Financial Focus* 5(36), pp.1-5.
- 이건범, 2009,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동향과 전망* 78호, pp.89-117.
- 정기화·구재운·김영룡·김일태·손용화, 1998, *지역경제와 지역산업구조의 개편방향*, 집문당.
- 정해일 외, 1992,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협동조합의 가치(상)(하)*, 서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최진배, 2013, “1980-90년대의 금융자율화와 신협의 대응”, *지역사회연구* 21(4), pp.21-47.
- 최진배, 2014, “한국신협의 정체성 위기에 대하여”, *지역사회연구*, pp.21-42.
- 최진배, 2015,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이어야 하는가?”, *사회경제평론*, pp.163-204.
- 한국은행 포항본부, 2015, *경북 동해안지역 가계의 금융기관 이용행태 분석과 시사점*.
- Angelini, P., Di Salvio, R. and Ferri, G., 1998, “Availability and cost of credit for small business: Customer relationships and credit cooperativ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2, pp.925-954.
- Avery, R. B and Samolyk, K. A., 2004, “Bank Consolidation and Small Business Lending: The Role of Community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291-325.
- Berger, A. N. and Frame, W. S., 2007, “Small Business Credit Scoring and Credit Availabil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5(1), pp.5-22.
- Berger, A. N., Hansen, I. and Klapper, L. F., 2004, “Further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Finance and Growth: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Community Banking and Economic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169-202.
- Berger, A. N., Klapper, L. F. and Udell, G. F., 2001, “The Ability of Banks to Lend to Informationally Opaque Small Busines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 pp.2127-2167.
- Berger, A. N., Rosen, R. J. and Udell, G. F., 2007, “Does Market Size Structure Affect Competition? The Case of Small Business Lend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1, pp.11-33.
- Berger, A. N and Udell, G. F., 2002,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Bank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36(2), pp.225-251.
- Berger, A. N. and Udell, G. F., 2006, “A More Complete Conceptual Framework for SME Fina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0, pp.2945-2966.
- Birchall, J. and Ketilson, L. H., 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Bonaccorsi di Parti, E. and Dell'Ariccia, G., 2004, "Bank Competition and Firm Cre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3), pp.225-251.
- Catturani, I. and Borzaga, C., "Facts and Stereotypes about Cooperative Banks: To Whom Do CBs Actually Lend",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3(2), 2014, pp.7-31.
- Cetorelli, N., 2003, "Real Effects of Bank Competition",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3), pp. 543-558.
- Cetorelli, N and Gambera, M., 2001, "Banking Market Structure,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International Evidence from Industry Data", *The Journal of Finance* LVI(2), pp.617-648.
- Cornee, S., 2014, "Soft Information and Default Prediction in Cooperative and Social Banks",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3(1), pp.89-109.
- Degryse, H. and Cayseele, P. V., 2000, "Relationship Lending within a Bank-based System: Evidence from European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pp.90-109.
- Degryse, H., Laeven, L. and Ongena, S., 2009,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Lending Technology on Banking Competition", *Review of Finance* 13, pp.225-259.
- DeYoung, R., Hunter, W. C. and Udell, G. F., 2004, "The Past, Present, and Probable Future for Community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85-133.
- Fairbairn, B., Ketilson, L. H., Krebs, P., 1997, *Credit Union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entre for the Study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 Ferri, G. and Messori, M., 2000, "Bank-Firm Relationships and Allocative Efficiency in Northeastern and Central Italy and in the South",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4, pp.1067-1095.
- Giagnocavo, C., Gerez, S. and Sforzi, J., 2012, "Cooperative Bank Strategies for Social-Economic Problem Solving: Supporting Social Enterprise and Local Development",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3(3), pp.281-315.
- Greenwald, B. C. and Stiglitz, J. E., 1992, "Capital Market Imperfec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iovannini, A. ed., *Finance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so, L. Sapienza, P. and Zingales, L., 2004, "Does Local Financial Development Matte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pp.929-969.
- Hauswald, R. and Marquez, R., 2006, "Competition and Strategic Information Acquisition in Credit Market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9(3), pp.967-1000.
- Howorth, C. and Moro, A., 2006, "Trust within Entrepreneur Bank Relationships: Insights from Ital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uly, 2006, pp.495-517.
- Lemzeri, Y., "Did the Extent of Hybridization Better Enable Cooperative Banking Groups to Face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3(1), 2014, pp.57-85.
- Macpherson, I., 2013, *The Limits of Co-operation*, University of Saskatchewan and Centre of the Study of Co-operatives.
- Moore, C. L. and Hill, J. M., 1982, "Interreg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 pp.499-512.
- Ory, J. and Lemzeri, Y., 2012, "Efficiency and Hybridization in Cooperative Banking: The French Cas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3(2), pp.215-250.
- Petersen, M. A. and Rajan, R. G., 1995, "The Effect of Credit Market Competition on lending Relationshi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pp.407-443.
-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s of Intermediary Behavior*, Avebury.
- Presbitero, A. F. and Zazzaro, A., 2011, "Competition and Relationship Lending: Friends or Foes?", *Journal*

-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0, pp.387-413.
- Samolyk, K. A., 1994, "Banking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Evidence of a Regional Credit Channe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4, pp.259-278.
- Santikian, L., 2014, "The Ties that Bind: Bank Relationships and Small Business Lending",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3, pp.177-213.
- Scott, J. A., 2004, "Small Business and the Value of 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25(2/3), pp.207-230.

교신: 권오혁,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전화: 010-7352-6909, 이메일: okwon@pknu.ac.kr

Correspondence: Ohyeok Kwon, Division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aeyeon-Dong, Nam-Gu, Busan, Korea, Tel: 82-10-7352-6909, E-mail: okwon@pknu.ac.kr

최초투고일 2016년 5월 14일

수정일 2016년 5월 27일

최종접수일 2016년 5월 30일